

**부산일보**

# 부산 호텔업계 예약률 꺾충 "얼마 만이냐"

기사입력 2020-04-26 19:24

황금연휴 앞두고 최고 80%  
연휴 직전 90% 육박 전망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호텔 전경. 부산일보DB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모처럼 부산지역 호텔업계에 생기가 돌고 있다.

제주나 강원처럼 '만실' 사태가 빚어지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와 비교하면 예약률이 꺾충 뛰었다.

26일 부산지역 호텔업계에 따르면 황금연휴 기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힐튼 부산의 예약률은 80%까지 뛰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객실 가동률이 아직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2~3월에 비하면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된 셈이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역시 예약률이 70~75%에 이른다. 호텔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30일께 예약률은 90%에 육박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파크하얏트 부산도 황금연휴 객실 예약률이 지난달보다 약 30% 증가한 6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호텔업계의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제주와 강원 of 가파른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부산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의 대체수요는 제주가 흡수하고 있고, 강원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점을 극대화해 여행객이 몰리고 있다"며 "부산의 경우 시내보다는 송정, 기장 등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황금연휴 기간에 모처럼의 특수가 예상되지만 관광업계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며칠 간의 '반짝 특수'인 데다 자칫 코로나19가 연휴 기간 도로 확산할 경우 업계의 고사 상태가 더욱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덕준·안준영 기자 jyoung@

-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2&aid=0000998593>

---